

월요일

사사기 라이프 스터디 - 메시지 4

이 장들에 기록된 역사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여성 지도자를 둔 적이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은 여성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일으키셨다. 이것에 관하여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뭔가 평범하지 않은 두드러진 일을 하실 때, 그것은 매우 의미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먼저 남자의 실패를 가리키며, 그 다음 하나님의 뛰어난 행동을 가리킨다. 사사기 4 장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실패했으며, 따라서 하나님은 한 여자를 일으키셨다. 그러한 여성의 일으켜짐은 이스라엘의 상태 전체를 바꾸어 놓았다.

성경에서 합당한 여성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 곧 하나님의 정하심을 지키는 자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위치였지만, 이스라엘의 상황은 완전히 비정상적이 되고 말았다.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의 합당한 위치를 떠났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정하심을 위반했으며, 하나님의 아내로서의 위치를 떠났고, 수많은 우상들을 인하여 그분을 저버렸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비참한 상황과 상태로 이끌어가고 말았다.

하나님의 창조에 따라, 드보라는 매우 역량 있는 사람이었다. 5 장에 있는 그녀의 노래를 읽어볼 때, 우리는 그녀가 능력과 역량과 통찰력과 예지로 충만했음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것처럼 뛰어난 여인은 매우 복종적이었다. 하나님은 그녀를 인도자가 되게 하셨지만, 그녀는 합당한 순서를 지켰으며, 바락을 자기의 덮개로 취했다(5:6-9). 그녀는 자신의 머리를 가려 줄 남자가 필요함을 인식했다. 사실상 바락은 거의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드보라는 그를 자기의 「머리 수건」으로 취했다. 그녀가 이러한 입장을 취했을 때, 온 나라가 따르게 되었다. 그들의 비참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도 여호와와 권익을 위해 싸우기 위해 인도하려 하지 않았고, 아무도 기꺼이 따르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뛰어나고 비범한 여인이 앞서서 남자에게 복종하는 실행을 주도했을 때, 나라 전체가 합당한 질서 안으로 들어왔다. 모든이들이 남자 또는 여자의 합당한 위치로 돌아왔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강림하셨도다』(5:13). 모든 인도자들이 함께했으며, 모든 백성이 따랐고, 군대가 편성되었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만 따랐지만, 결국 모두가 따랐다. 온 나라가 뛰어난 질서 안으로 들어왔고, 여호와 앞에서 합당한 위치를 취했다.

사사기 5 장 15 절과 16 절은 「마음의 큰 결심」과 「마음의 큰 살핍」을 말한다. 비참한 상황에서는 누구도 자기의 마음을 살피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싸우기 위해 일어나 다른이들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백성들에게 마음에 큰 살핍이 필요했으며, 마음에 큰 결심이 필요했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활력 그룹 실행에 적용할 수 있다. 활력 그룹을 위해 우리에게 많은 회개의 기도가 필요하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자연스럽게 마음을 살피는 것이 있게 된다. 이것은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현재의 필요를 따라 주님을 위해 살고 싸우려는 결심을 산출한다. 특히 우리는 주님의 증가를 위해 사람들을 얻는 것에 관해 주님 앞에서 결심해야 한다. 이것이 「마음의 큰 결심」이다.

사사기 3 장 12 절과 13 절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강성케 하셨다고 말하지만, 4 장 6 절부터 16 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고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성육신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과 짝을 이루기 원하시며, 그럴 때 그분은 움직이실 수 있다. 만일 이스라엘이 싸우기를 원치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싸우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스라엘이 드보라의 인도 아래서 합당한 순서 가운데 싸우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싸우실 것이다. 원칙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다. 만일 우리가 죄인들을 얻기 위해 나가려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가시지 않을 것이지만, 우리가 간다면, 하나님은 가실 것이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나아감은 우리 마음의 살핍과 우리 마음의 결심을 필요로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우리 마음의 살핍과 우리 마음의 결심 안에서 능동적이 되기 전에는 역사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것이 싸우는 길이요, 복음을 전하는 길이요, 죄인들을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는 길이다.

사사기 5 장 31 절 후반절은,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돋음 같게 하시옵소서』라고 말한다. 해가 힘있게 돋는다는 것은 밝고, 환하고, 영광스럽게 빛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에게는 살핍과 결심과 솟아오르는 태양의 비침이 필요하다. 만일 모든 교회들이 이와 같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승리를 누릴 것이다.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사랑스런 모든 성도들이 큰 살핍과 큰 결심을 가져 주님을 사랑함으로 밝게 빛나서 그들 모두가 솟아오르는 태양과 같기를 바란다.

화요일

사사기 라이프 스토리 - 메시지 5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여호와께 부르심받은 놀라운 사사 기드온은 네 가지로 인해 성공적이었다. 첫째, 그는 그 당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희귀한 것이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깊게 들었다. 둘째,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것에 따라 행하였다. 셋째, 그는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었다(6:25-28).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만졌다. 이스라엘의 하락 때에 하나님은 우상들을 극도로 미워하셨다. 참 남편이신 하나님은 모든 우상들을 자신의 아내인 이스라엘과 음행하는 남자들로 여기셨다. 넷째, 그는 자기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어버림으로 아버지와 관계와 사회적인 누림을 희생하였다. 그가 행한 것 때문에 오브라 성읍 사람들은 그와 싸웠으며, 심지어 그를 죽이고자 했다(28-30 절). 기드온이 하나님을 위해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데에는 자신의 이익을 희생할 것이 요구되었으며, 이 희생은 기드온의 성공의 강한 요인이었다.

7 장 2 절부터 7 절까지에서 삼백 명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개인의 이익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우리의 누림을 희생하는 것이 강조된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을 대항해 싸울 백성들을 부르기 위해 나팔을 불었을 때, 삼만 이천 명이 응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따르는 자들이 너무 많아 미디안을 그들의 손에 붙일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자궁하여,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고 말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수가 너무 많다고 기드온에게 말씀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그들을 위해 싸우실 것임을 암시하고 계셨다. 먼저, 이만 이천 명이 두려워하여 집으로 돌아갔다(3 절). 그런 다음, 여호와께서는 남아 있는 만 명을 물을 마시도록 이끌어 그들을 시험하셨다. 무릎을 꿇고 개가 핥듯이 핥은 사람들은 집으로 보내졌다(5 절). 오직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물을 핥은 자 삼백 명만이 미디안과 싸우도록 하나님께 선택되었다(6 절). 여호와께서는 그런 식으로 물을 핥은 삼백 명을 통해 미디안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임을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기드온과 같이, 이 삼백 명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기꺼이 헌신하였다.

이러한 네 가지 요인의 결과로서, 기드온은 경륜적인 영이 그에게 임하는 보상을 받았다(6:34). 따라서, 그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고, 삼백 명만으로 두 방백과 두 왕을 패배시켰다(7:25, 8:10-12). 기드온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는, 하나님과의 연합 가운데 있는 한 사람, 곧 하나님-사람의 그림을 본다.

이 커다란 성공-사사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주기 가운데 가장 큰 성공-후에 기드온은 끔찍한 실패를 하였다. 이 실패의 원인은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된다. 첫째, 기드온은 무정하였다. 그는 그를 돕지 않은 시골 사람들을 죽임으로써(16-17 절) 하나님의 여섯째 계명을 깨뜨렸다(출 20:13). 둘째, 그는 육신의 정욕에 빠져 육신의 정욕을 전혀 제한하지 않았다. 이것은 사사기 8 장 30 절에 나타나 있는데, 그 구절은 기드온에게 「아내가 많으므로」 칠십 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말한다. 더욱이, 세겜에 있는 그의 첩이 또 한 아들을 낳았다(31 절). 이로 인해 기드온은 일곱째 계명을 깨뜨렸다(출 20:14). 셋째, 비록 그가 백성을 다스리는 것을 거절함으로 선한 일을 행했지만(삿 8:22-23), 그는 백성의 탈취물을 탐했고, 그들은 그것을 그에게 넘겨 주었다(24 절).

기드온의 성적인 방종과 금을 탐한 것은 그를 우상 숭배로 이끌었다. 탐심은 우상 숭배요(골 3:5), 음행과 탐심은 우상 숭배와 연결된다(엡 5:5). 심지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시작했던 솔로몬 왕도 많은 이방 아내들로 인해 결국 우상 숭배자가 되었다(왕상 11:4). 기드온은 백성에게서 취한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으며, 이 에봇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우상이 되었다(삿 8:29). 그 결과, 기드온 가족과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부패하게 되었다. 기드온은 바알의 단과 그 우상을 헐어버림으로 시작하였지만, 성공 후에 그는 뭔가 우상에 속한 것을 건축했다. 이러한 실패는 그의 모든 성공을 무효화시켰다.

사사기는 그리스도의 예표인 좋은 땅을 누림에 관한 책이다. 기드온의 성공은 그리스도를 누릴 뛰어난 기회를 얻은 것을 가리키지만, 그의 실패는 그리스도를 누릴 기회를 잃은 것을 가리킨다. 그의 실패는 우리가 성(性)과 부(富)의 문제를 다룰 때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을 잃는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에서의 어떤 방종도 우리의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을 무효화시킬 것이다.

이제 계속해서 6 장 1 절부터 8 장 32 절까지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비참한 역사의 네번째 주기에 관하여 많은 항목들을 살펴보자.

수요일

사사기 라이프 스터디 - 메시지 6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은 영이 있는 사람을 창조하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분을 접촉하고, 영접하고, 생명 삼게 하셨다.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는 우리가 접촉하고 영접할 수 있는 생명의 체현이신 하나님 자신을 상징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다른 나무, 즉 선악 지식의 나무에 참여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는데, 이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은 사망을 초래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존재하기 시작한 때부터 사탄은 그 자신의 체현인 선악 지식의 나무를 받아들이도록 사람을 유혹하고 있었다. 지식의 나무를 취하는 것은 사실 사탄과 결혼하고 하나님과 이혼하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과 결합하는 것이 인간 사회의 혼돈 배후에 있는 강한 요인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과 결합함으로써 인해, 모든 나라와 사회와 가족을 포함하여 온 세상이 혼란스럽게 되었다.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과 결합한 후에 즉시 혼돈이 들어왔다. 이 혼돈의 첫번째 나타남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아담의 가족 안에서 일어났던 최초의 살인이었다. 그때 이 후로 계속 모든 나라와 사회와 가족 안에 혼돈이 있어 왔다. *(사사기 라이프 스터디 - 메시지 6 [1-2 단락])*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혼돈의 기간들이 있었다. 회복 안에서 거의 십 년마다 배역의 주기가 있어 왔는데, 이는 야심을 이루려고 세력을 얻기 위해 분투하는 것과 관련된 것 같다.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최근 반역에는 두 뿌리가 있는데, 하나는 마음 상한 것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루어지지 않은 야심이다. 이 모든 배역들의 내재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탄을 좇아간 것이다. 사탄은 야심으로 인해 타락했다. 사탄을 좇아가는 것은 그가 타락했을 때 가졌던 야심에 연루되는 것이다. 그는 보좌에 오르기를 원했다. 그는 가장 높으신 분과 같이되기를 원했다(사 14:13-14). 그러므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탄과 결합하는 것은 바로 이 악한 자 안에 있는 본래의 야심에 연루되는 것이다.

배역의 결과는 항상 혼돈이었고, 배역적인 사람들은 자신을 손상시켰다. 최근의 배역에 가담한 교회들은 황폐해지고 심지어 인수가 줄어든 반면, 남아 있는 교회들은 증가했다.

가정생활에서 남편과 아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 아닌 다른 모든 것을 거절할 때, 그들의 결혼생활은 놀라운 것이다. 그러나 일단 남편이나 아내가 주님 대신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들의 결혼생활과 가정생활은 혼돈스럽게 된다.

이 원칙은 온 인류, 모든 나라, 모든 사회, 모든 가족, 모든 개개인에게 적용될 수 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사탄을 미워한다면, 우리에게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변하여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기 시작한다면, 언제나 고통에 떨어질 뿐일 것이다. 시편 33 편 12 절은,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나라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한다. 여호와를 자기 주와 머리와 왕과 남편으로 삼는 모든 자들-나라든, 사회든, 무리든, 개인이든-은 복이 있다. *(사사기 라이프 스터디 - 메시지 6 [6-8, 10 단락])*

목요일

룻기 라이프 스토리 - 메시지 1-5

룻기는 사사기의 부록으로 사사기의 전반부와 동시대이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비참한 역사에 대한 책으로 어둡고 악취가 나는 반면, 룻기는 몇 가지 탁월한 이야기의 기록으로 밝고 향기롭다. 이 이야기의 주된 역할은 가시덤불에서 자라나는 한 송이의 백합 같고 어두운 밤의 밝은 별 같다. (룻기 라이프 스토리 - 메시지 1)

룻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하나님의 선민에 참여하는 목표를 선택했으며, 심지어 인류 안으로 그리스도를 낳는 것을 돕는 뛰어난 조상이 되었다. 이것은 단지 모압의 과부가 결심한 것 이상의 것으로서, 하나의 목표요 선택이었다. 룻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왕국을 선택했다. 할렐루야, 이러한 목표를 인해, 그리고 이 목표를 선택한 그와 같은 사람이 있음을 인해 주님을 찬양한다. (룻기 라이프 스토리 - 메시지 2)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이교도의 배경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인 룻은 하나님의 선민의 기업의 풍성한 소출에 참여하기 위해 그녀의 권리를 행사했다. 모압 여인 룻은 좋은 땅에 체류자로 왔었다. 체류자요 가난한 자요 과부인 삼중 신분에서 따라 그녀는 수확물을 주울 권리를 행사했다. 비록 가난했지만 그녀는 결코 거지가 되지 않았다. 그녀가 이삭을 주운 것은 구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권리였다.

룻기는 죄인들이 그리스도께 참여하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길과 위치와 자격과 권리를 묘사한다. 하나님의 정하심에 따라,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릴 권리를 주장할 자격과 위치를 부여받았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구걸할 필요가 없음을 뜻한다. 우리는 자신을 위한 그분의 구원을 주장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는 구원을 주장할 위치와 자격과 권리를 갖고 있다. 이것이 복음을 영접함에 있어서 최고 수준이다. (룻기 라이프 스토리 - 메시지 3)

1 장은 룻의 선택을 보여주고, 2 장은 룻이 그녀의 권리를 행한 것을 보여주고, 3 장은 룻이 그녀의 안식을 추구하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우리가 안식을 갖는 정도까지 그리스도를 누려야 한다. 안식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확실히 가정이 필요하다. 어떤 곳도 우리의 가정만큼 안식을 줄 수 없다.

3 장에서 나오미는 룻에게 가정을 얻으라고 제안했고, 심지어 재촉했다.

룻이 취한 단계들은 우리의 영적 체험과 일치한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모두에게 자신의 기호와 선택이 있었다. 주님의 주권적인 안배로 우리는 복음을 들었고, 그리스도의 믿는이가 되기로 결심했다. 우리의 선택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었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유기적으로 그분과 연합되었다. 이제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는 그분 안에 있다. 이러한 친밀하고 유기적인 연합으로 인해 우리는 그분을 얻고, 소유하고, 체험하고 누리기 위해 그리스도를 추구하기 시작해야 했다. 이것은 룻이 좋은 땅의 산물을 얻고 소유할 수 있는 그녀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예표된다. 룻이 그 땅에 들어온 후에 좋은 땅의 산물을 누릴 권리를 소유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분을 믿은 후에 우리의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룻기 라이프 스토리 - 메시지 4)

룻이 얻은 보상의 또 다른 방면은 그녀가 그리스도를 낳기 위한 다윗 왕가를 이끌어오는 계보에서 결정적인 조상이 되었다는 것이다(룻 4:13 下-22, 마 1:5-16). 이것은 그녀가, 그리스도를 인류 안으로 이끌어오는 위치와 역량과 함께 만유를 포함하고 만유에 미치는 소득을 얻었음을 가리킨다. 따라서, 그녀는 온 땅의 모든 구석구석에 그리스도를 이끌어오는 사슬에서 하나의 큰 연결고리이다. 우리 모두는 룻에게 빛진 자들이다. 왜냐하면 그녀가 없었다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도달하실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는 룻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르신다.

이 사역의 부담은 믿는이들 안에 그리스도를 낳는 것이다. 이것은 이 사역의 목표가 여러분이 겸손해지도록, 혹은 다만 행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님을 뜻한다. 오히려 이 사역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주입하는 것」이요, 「항생제」이신 그리스도를 분배하는 것이다. 그러한 주입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노래할 것이다.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네!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네! 오, 이 어떠한 구원인가!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네!』 한편으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주입되심은 우리 옛사람을 죽일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우리로 그리스도를 낳는 자들, 곧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자들이 되게 할 것이다.

룻은 그리스도를 낳는 계보에서 결정적인 조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위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성의 노선을 계속 이었다(마 1:5-16).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그분이 영원으로부터 나오셔서 그분의 신성을 지니고 시간 안으로 들어오시는 문제였다. 실제적으로, 이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야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은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연속이어야 하며,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사역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으로 태어나시기 위해 산출되는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려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위해 말하고, 그리스도를 말해내며,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말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를 사역하는 것은 분명 우리를 바꾸어 놓을 것이다. (룻기 라이프 스테디 – 메시지 5)

금요일

룻기 라이프 스토리 - 메시지 6

시작에 있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의 정하신 축복들 안으로 이끄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한다(수 1:2-4, 앱 1:3-14). 여호수아에 의해 예표되는 대로, 그리스도는 우리를 좋은땅 안으로 이끄셨으며, 우리를 위해 그 땅을 소유하셨으며, 우리의 누림을 위해 그 땅을 우리의 기업으로 우리에게 할당하셨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좋은 땅을 얻으셨으며, 결국 그분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좋은 땅이시다.

끝에 있는 보아스는 다른 방면들에서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특히, 그는 우리의 만족을 위한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보아스는 두 방면에서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부유하고 관대하게 주는 사람인 보아스는, 하나님의 궁핍한 백성에게 그 신성한 풍성을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의 풍성한 공급으로 돌보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한다(앱 3:8, 고후 12:9, 빌 1:19 下).

애석하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체험상으로 그리스도의 풍성을 소유하지 못하고 또 그분을 남편으로 취하지도 못한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풍성으로 취하며 또한 남편으로 취한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말한다(3:8). 그는 또한 교회의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말한다(5:23-32). 계시록에서 우리의 남편은 어린양, 곧 구속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된다(21:2, 9). 그러므로 성경은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지니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심을 계시한다. 성경의 마지막 두 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곧 어린양이 우리의 남편이신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이들인 우리가 어린양의 아내인 것을 본다.

룻의 죽은 남편 말론의 친족으로서 말론의 잃어버린 재산을 구속하고 필요한 상속자를 낳기 위해 말론의 과부 룻을 아내로 취한(룻 4:9-10) 보아스는 교회를 구속하시어 교회를 그분의 증가를 위한 배필로 삼으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앱 5:23-32, 요 3:29-30).

죽은 남편의 잃어버린 재산권의 회복을 위해 죽은 남편의 빚을 청산해 준 보아스에 의해 구속된 죽은 남편의 과부 룻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타락한 천연적인 사람의 잃어버린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옛사람의 죄를 정결케 하신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된, 십자가에 못박힌 남편(롬 7:4 下) 옛사람을 가진 교회를 예표한다.

보아스에 의해 구속되어 그의 새로운 아내가 된 룻은 교회의 천연적인 사람의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배필이 된 교회를 예표한다(롬 7:4 下). 구속된 룻이 보아스의 새로운 아내가 되듯, 구원받고 거듭난 교회는 그리스도와 의 유기적인 결합 안에서 그분의 새로운 아내, 배필이 된다.

이제 예표론에서 룻의 상황의 다양한 방면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좀더 살펴보기로 하자.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룻은 선하였지만, 아담 안에서 타락되었다. 그녀가 이스라엘로 돌이켰을 때, 그녀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구속되었다. 그럴 때 새 사람이 된 그녀는 보아스와 결혼하여 그의 새로운 아내가 되었다.

룻과 그녀의 죽은 남편의 예표가 상징하듯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룻의 천연적인 부분과 타락된 부분은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남편인 체하며 동역하였다. 이 남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부분과 타락된 부분으로 이루어진 그녀의 옛사람의 주된 부분이었다. 불법적인 남편인 그 옛사람은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매우 큰 빛을 졌으며, 그로 인해 자신을 팔고 또 그의 죄들로 인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로서의 그의 권리를 상실하였다. 룻은 남편이 죽은 후 과부였을 뿐 아니라 빛진 상태에 있었다. 이 상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합당한 사람과 결혼함으로 결합되는 것이었다. 룻은 보아스와 결혼했을 때 그녀의 빛에서 구속되었고 또한 필요한 상속자를 낳기 위해 그의 새로운 아내가 되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상황의 그림이다. 우리의 남편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 우리 옛사람의 죄들로 말미암아 야기된 빛을 청산하시기 위해 죽으셨다. 그런 다음, 부활 안에서 그분은 생명 주는 영으로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창조되고 타락한 자인 우리를 그분과 결혼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 이제 그리스도와 우리의 유기적인 연합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낳을 수 있고 또 그분의 증가를 위해 그리스도를 널리 확산시킬 수 있다.

토요일

룻기 라이프 스터디 - 메시지 8

룻기에 관한 이 결론의 말에서 나는 여호수아, 사사기와 룻기에서 매우 중요한 점을 다루고 싶다.

능력의 영 안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이심과 생명의 영 안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이심

이 중점은 이 책들이 양면을 지닌 하나의 그림을 우리에게 제시한다는 것이다. 한 면은 그분의 경륜적인 영, 즉 능력의 영 안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이심과 관계되고, 다른 한 면은 그분의 본질적인 영, 즉 생명의 영 안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이심과 관계된다. 모든 사사들, 심지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서도 우리는 능력 안에서의 하나님의 역사, 움직이심을 볼 수 있을 뿐이다. 여호수아와 사사기에서는 생명 안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이심에 대한 암시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대조적으로, 룻기는 능력이 아닌 생명의 책이다.

룻은 생명 안에서 뛰어났다. 룻기의 목적은 우리에게 능력에 관한 어떤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으로 생명에 속한 것을 계시하려는 것이다. 나오미는 엘리멜렉의 후손을 낳아 룻을 위해 그녀를 구속할 남편을 낳아줄 능력이 전혀 없음을 룻에게 분명히 밝혔다. 소망 없는 상황을 느낀 나오미는 룻에게 장래를 위해 친정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했다. 그러나 룻의 대답은 생명으로 충만했다. 그녀는 나오미와 영원토록 동행하기를 원했으며, 가난 속에서 그녀와 함께 있기를 원했다. 룻은 나오미에게,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말했다(16-17 절). 모든 것, 즉 부모와 자식, 친척, 집 등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신약의 참된 영이다(마 10:37, 19:29, 막 10:29-30, 눅 14:26). 이것이 신약에 계시된 생명의 길이다.

그날 밤 타작 마당에서 룻을 접촉할 때 보아스는 분명 제한받았으며, 정욕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정욕에 빠진 사사들과 전혀 달랐다. 보아스는 룻을 축복하면서 높이 칭찬했다. 그리고서 그는 룻에게, 그가 하나님의 정하심에 따라 책임을 감당하여 기꺼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구속할 것이지만, 이 문제에서 그보다 앞에 있는 자를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12-13 절). 여기서 보아스는, 『딸아, 내일까지 기다려라. 그렇다. 나는 너의 친족이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다. 그러나 나보다 더 너에게 가까운 또 한 친족이 있으니 그가 나보다 앞서 행하도록 허락해야 한다. 만일 내가 이 문제에서 그를 관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나를 지나쳤다고 정죄할 것이다. 다른 친족으로 하여금 나보다 앞서 가게 하라. 만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꺼이 친족의 의무를 다하려 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를 위해 그것을 행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 같다. 보아스는 모든 면에서 합법적이었으며, 그가 합법적인 것은 능력에 근거하지 않고 생명에 근거하였다. 이것은 보아스가 가장 높은 단계의 생명을 소유하였음을 보여 준다.

주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능력 있고 큰 일을 행하는 사사들의 길을 취해야 하는가? 만일 우리가 생명의 길 대신 사사들의 길을 취한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성취하든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사사들 중에는 한 사람도 그리스도의 조상이 없었다. 사사들은 성육신 안에서 하나님을 이끌어오기 위해 인성의 노선을 유지하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이 노선을 지키는 데 참여한 사람들은 롯과 보아스였다. 그러나 그들은 전쟁을 하지 않았으며, 아무런 능력도 행사하지 않았다.

오직 생명만이 그리스도를 낳을 수 있음을 보는 것은 중요하다. 오직 생명만이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이끌어오고 그리스도를 산출하여 그리스도를 공급하며, 전 인류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할 수 있는 가느다란 선을 유지하는 혈통을 지킬 수 있다. 이것은 사사들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취한 롯과 보아스에 의해 이뤄진다.

주의 회복 안에서 나는 증가를 얻도록 많이 권장했지만, 삼손이나 기드온이 됨으로 증가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오히려 나는 아무런 능력 없이, 일의 결과 없이 영원으로부터 시간 안으로 그리스도를 낳는 노선 안에, 신성을 지니신 그리스도를 인성 안으로 낳는 노선 안에 머물고 싶다.